



3면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

전주매일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음 11월 24일) 제365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고창 신활력산단에 첨단기업 속속 유치

도·고창군·3개 기업
1900억원 투자협약 체결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고창 신산업단지 입주기업 투자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심덕섭 고창군수, 최원식 손오공머티리얼즈 대표, 김하준 지텍 대표, 유진열 대경에이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부터, 김관영 도지사, 최원식 손오공머티리얼즈 대표, 유진열 대경에이티 대표, 김하준 지텍 대표, 심덕섭 고창군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활력산업 단지에 국내 최고 에너지저장장치 소재기업을 비롯해 반도체 소재,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 3곳이 1,900억원을 투자한다.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분양 이후 잇따른 투자유치 성과로 고창신활력산단은 최첨단 산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고창군은 23일 도청회의실에서 (주)손오공머티리얼즈, (주)지텍, 대경에이티(주) 3개사와 투자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심덕섭 고창군수, 최원식 손오공머티리얼즈 대표, 김규현 지텍 최고기술책임자(CTO), 유진열 대경에이티 대표 등이 참석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키로 뜻을 모았다.

에너지저장장치 소재 기업인 (주)손오공머티리얼즈는 전기차(EV)와 전력저장시스템(ESS)의 핵심 소재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탄산리튬 생산을 위해 2025년 5월부터 2027년까지 고창 신활력산업단지에 1,630억원을

투자해 연간 2만5,000톤의 탄산리튬을 생산할 계획이다.

전력반도체 소재 등을 생산하는 (주)지텍은 모바일 기기, 전기차동차,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력반도체 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2025년 1월 중 분업체약을 체결하고 2026년 6월까지 총 21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전기·전자부품을 생산하는 '대경에이티(주)'는 고창 신활력산업단지에 35억 원 상당을 투자해 자동차 및 가전

용 전기·전자부품, 첨단 스마트 온실용 기자재를 생산할 예정이다. 특히 고창사업장 준공시점이 2025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어 내년 중 인력채용 등 가시적인 투자성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전북 투자에 이어 연이은 첨단기업들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전북자치도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고창군 입주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7년 사업개시를 목표로 하는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가칭 스마트물류센터)와 함께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투자협약을 신호탄으로 고창신활력산업단지가 완공 분담되도록 첨단ESG기업 유치를 최선으로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고창=김영식 기자

국토부 도시재생 '뉴:빌리지' 신규 공모 선정

부안 서신·서외지구 최종 선정... 전북자치도, 국비 84억 확보
맹지 해소, 복합편의시설·무더위쉼터 등 생활편의시설 공급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빌리지' 신규공모에서 부안 서신·서외지구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8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국토부의 신규 공모유형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로, 지역 내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정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 저층 주거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지원을 통해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 유형에 대한 첫 성과이다.

이번에 선정된 부안군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사업'은 부안을 서외리 일원의 노후 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총사업비 177억원(국비 84억 원 포함)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맹지 해소와 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복합편의시설, 무더위쉼터, 썬지주차장 등 생활편의시설 공급 △CCTV, 안심벨, 쓰레기 처리장 등 생활안전 스마트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뉴빌리지 사업이 추진되면 노후 주거 밀집지역 대한 생활 SOC 공



부안을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위치 평면도.

급과 재해예방으로 주민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지고, 신규 주택수요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기반 시설 및 편의시설 정비를 통해 정비 사각지대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12월 25일 성탄절에 따라
신문은 26일 발행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4년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14일간 실시한 '2024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4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는 전북특별자치도 1만3,515개 표본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2만1,031명)을 대상으로 △가구·가족, △소득·소비, △고용·노사, △복지, △사회참여, △도 특성항목 등 6개 부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삶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10점 만점 기준 자신의 삶 6.6점, 지역 생활 6.3점, 어제 행복 6.5점, 어제 걱정 3.8점으로 2022년 대비 자신의 삶(0.3점), 지역생활(0.1점), 어제 행복

도내 부부 10명 중 5명 "가사 공평하게 분담해야"

2024 전북자치도 사회조사 결과

삶·가족관계 만족도 상승, 다문화 가구 긍정 관심도 증가

(0.2점)은 증가하고, 어제 걱정(0.6점)은 감소했다.

가족관계 만족도 전반적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이 78.1%로 2022년 대비 14.1%p 증가했다.

가사분담에 대한 생각으로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52.6%)는 비율이 2022년 대비 22.6%p 증가했으며, 실제로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21.6%)는 비율도 4.7%p 늘었다.

다문화 가구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비율은 27.3%로 2022년 대비 6.6%p 상승하였고, 다문화 가구에 대한 긍정 견해도 35.8%로 2022년 대비 7.8%p 상승했다.

소득·소비와 관련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45.0%로 2022년 대비 5.2%p 증가한 반면, '300만원 이하' 모든 소득 구간은 소폭 감소했다.

월평균 가구지출은 평균 218.9만원으로 2022년 대비 22.3만원(11.9%) 증가했고, '200만원 이상' 지출 가구가 45.7%로 2022년 대비 4.2%p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식료품비(53.8만원, 24.6%)' 지출이 가장 많았으며, 2022년 대비 '문화 및 여가비(10.8만원, 61.2%)'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고용·노사와 관련, 근로여건 '전반적 만족도'는 46.4%로 2022년 대비 7.8%p 증가하였으며, '일(53.5%)', '임금(36.2%)', '복리후생(38.6%)', '고용안정성(44.6%)' 등 모든 부문에서 만족도가 증가했다.

복지와 관련,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비율은 63.5%로 2022년 대비 4.3%p 증가했고,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60.5%)', '예금·적금·저축성보험(17.0%)', '공적연금(8.8%)'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겪는 문제는 '건강문제(44.5%)', '경제적 문제(35.1%)', '외로움·소외감(12.4%)' 순이며,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는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 서비스 확대(63.4%)', '노인 일자리 제공(14.4%)'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첫해를 맞아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도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환경의 질, 안전 등 다양한 지표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사회안전망 강화를 비롯한 정책적 노력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전영평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아이와 청년, 여성과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살기 좋은 특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은행

전북은행, VIP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열다!

THE FIRST LOUNGE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VIP 대여금고
RENEWAL OPENING

더 퍼스트 라운지
GRAND OPENING

고객상담 및 방문예약
063. 250. 7744 / 7759

*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 준비감사인 심의일 제 2024-다-2781호 (유효기간: 2025. 12. 3 까지)